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노왈수 박사 이사장 전충현 목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http://www.sb.ac.kr / E-mail : bs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지저스타임즈

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전 2:00~7:00 (토 · 공휴일 5시까지, 주말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867번지 SK엠시티 드라마파크2층 212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76호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3 · 1운동 95주년 메시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3 · 1운동 발발 95년에 즈음하여 메시지를 발표하고"일본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신음하던 이 땅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3.1만세운동은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집되어 전 세계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친 정의와 평화, 자유의 갈구였다"고 강조했다. 〈2면에서 계속〉

한기총, 고유 업무 방해한 한교연에 공개질의서 발표

한기총을 음해한 소속교단과 김원남, 박중선 목사를 영구제명키로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24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5-1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8명 참석, 25명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3 · 1절 기념대회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한기총의 고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해 지난 2월 21일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질서확립대책위원장 정학채 목사와 총무협의회 회장 정춘모 목사, 그리고 한기총 소속 교단 총무 이름으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음을 보고하였고, 3월 1일(토) 오후 2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기총과 애총협(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대표 이상훈 전 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순서 및 순서자에 대한 것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인원은 각 교단 총무들을 중심으로 1만 명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미자립교회 보조지원의 건은 각 교단에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에 대해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상임, 특별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다.

회원 및 회원교단 관련의 건은 이준원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한기총을 음해한 김원남 목사와 박중선 목사 그리고 소속한 교단을 각각 영구제명 처리하기로 하였다.

201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와 MOU 체결의 건은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특히 한국에 이슬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협조한다는 것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파송시 선교활동에서부터 포괄적인 신변보장을 인도네시아 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가 한다는 것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골로새서 2장 7-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사설

대남간첩총책 김양건이 왜 안 보일까?

1994년 3월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설립에 맞춰 북괴 노동당통일전선부에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라는 위장간판을 걸고 박지원 임동원 등 DJ정권실세를 떡 주무르듯 하면서 6.15정상회담을 미끼로 5억$이라는 뇌물까지 챙긴 김용순(2003.10사망)후임으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아태위원장)을 맡아 온 김양건이 최근에 안 보이고 있다.

김양건은 노무현이 NLL포기발언을 한 2007년 10.4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가하면, 대한민국 제17대 대선기간 중 대선투표일 20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 '산업시찰' 명목으로 장성택과 서울을 방문, 청와대에서 노무현을 만났는가하면 평양 귀환 전 숙소인 워커힐 세라톤 호텔에서 누군가와 접촉하는 등 김정일의 신임이 각별했던 자이기도 하였다.

김양건은 또한 장성택 주도로 외자유치와 외화벌이를 위해 2010년 1월 설립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장에 재임하는 등 장성택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자로서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직후에 있었던 12월 17일 김정일 사망2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고 12월 31일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방문에 수행을 했으나 다음날인 2014년 신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자 명단에서는 제외되었다.

북괴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따라 최근에 있었던 이산가족상봉행사재개 남북고위급접촉에 통일전선부 부부장 원동연이 참석 하는 등 김양건 관련동향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북괴 최대명절이라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경축 금수산기념공원 참배자와 중앙보고대회참가자 명단에서도 김양건 이름이 발표되지 않았다.

아직 김양건 체포나 처형소식은 없다. 인민군대장 남일이나 대남사업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및 아태위원장 김용순처럼 교통사고 소식도, 인민무력부장 최현처럼 독살소문도, 국가안전보위부부부장 류경이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처럼 총살소식도 전해진 것은 없지만 장성택 사건에 연루 됐거나 오랫동안 공들여 왔을 이석기 내란음모 실패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등 신병이상이 점쳐진다.

> 장성택 측근으로 몰려 숙청된 게 아니라면 특대형 도발 준비 중일지도

만약 김양건이 장성택 측근으로 몰려 숙청당한 것이 아니라 건재한 가운데 신년 행사와 최고 명절인 광명성절행사에 불참했다면, 이산가족상봉행사로 연막을 친 뒤에 총정찰국장 김영철과 함께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포격과는 차원과 형태가 다른 초대형도발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사진공모전

주제 :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이야기

이 세상이 세상이 현대 문명 속에서 각박해지고 냉랭해 졌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세상에 소망을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이야기' 들의 현장을 찾아서 사진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사랑과 섬김 나눔과 희생의 이야기들을 담은 많은 사진들을 보내 주십시오.
(입상한 사진들은 전국 전시회를 통하여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 출품 : 3월 1일 - 3월 31일
  (1인당 작품 수 5작품 이내로 제한함)
- 온라인 출품 : 협회홈페이지(christianphoto.co.kr) 회원 가입 후 공모전 갤러리에 사진을 업로드 하면 출품완료
- 심사 : 4월 1일 - 4월 5일 (협회 사진전문위원단에서 심사)
- 발표 : 4월 6일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 전 시 : 4월 23일 - 4월 29일 (시상식 4월 23일)
- 전시장: TOPOHAUS ART CENTER (인사동 쌈지길 앞)
  당선작은 국민일보와 코람데오 닷컴과 지저스타임즈에 발표합니다
- 주관: 국민일보 ,코람데오 닷컴, 지저스타임즈
- 주최: 대한 기독 사진가 협회
- 상 금
  대상(1명) 1,000,000원 + 상장
  우수상(1명) 500,000원 + 상장
  장려상(5명) 각 100,000원 + 상장
  국민일보상 1명 상품과 상장
  코람데오 닷컴상 1명 상품과 상장
  지저스 타임즈상 1명 상품과 상장
  입선(10명) 기념품

대한기독사진가협회 http://www.christianphoto.co.kr
공모전위원장 엄영수목사 안양대광교회(010-4930-3090)
협회장 김종욱 목사 대은교회 (010-3584-1687)

한기총, 인니기독교협의회와 협약조인식 체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목사, 이하 한기총)와 인도네시아 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대표회장 누스목사)는 지난 18일(화, 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리치 칼튼 호텔에서 협력조인식을 가졌다. 한기총 임원단 15명과 인니 기독교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가진 이날 조인식에는 양국 기독교간 선교협력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에 협력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누스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약교회 특징으로 연합된 교회, 칭찬받은 교회,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인니교회는 서로 형제우애를 갖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한국은 130여년의 짧은 선교역사와 혼란속에서도 1200만 성도와 6만여 교회로 성장하는 선교강국이 되었다"며 "인니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인니 종교성 기독교 책임자가 참석하여 격려했다. 인니 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는 178개 교단이 가입된 인니 최대의 기독교 연합단체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중 95%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수는 5%도 안되는 매우 열악한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선교사들이 인니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기총과 인니간 조인식으로 인니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다음은 협약 내용이다.

두 단체는 아래의 조항에 합의하며 앞으로 서로 연합과 협력을 할 것이다.

1.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두 단체의 모든 교회와 단체들을 지키고 인도하는데 전심전력한다.

2. 두 단체는 상대방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같은 선교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선교에 서로 협력한다.

3. 두 단체는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학교들과 기독교 병원들,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육과 건강, 영적 분야에 서로 협력한다.

4. 한기총은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회 단체 연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한다.

5. 1년에 1차례씩 상호 방문과 집회 개최를 실시한다.

6. 두 단체는 인도네시아 각 신학교와 교회와 단체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말씀이 교육되는데 협력한다.

오산반석교회 탈무드 작은 도서관 개관식 가져

탈무드 작은 도서관 개관식예배가 지난 2월 15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오산시 원동 양우프라자 8층 오산반석교회(김농주 목사)에서 드려졌다.

담임 김농주 목사(탈무드 작은도서관장)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김준곤 장로(전 성산초등학교 교장)가 기도하고, 쉐키이나 어린이 난타팀(오산반석교회)의 축하공연에 이어 수원노회장 임종억 목사는"나를 사랑하고 찾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지혜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며 탈무드 도서관을 통하여 지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을 기원했다. 또한 그렇게 지혜를 찾게 되면 부와 재물도 같이 따라올 것이라며 탈무드 도서관의 부흥을 위해 축복을 기원했다.

2부 개관식에서 오산시 곽상욱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산은 교육도시로써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 이렇게 탈무드 작은 도서관이 생기에 되어 기쁘다고 축사했다. 또한 오산 지역에 여러 작은 도서관이 있지만 단순히 도서관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서관이 되어 지역에 많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 줄 것을 기원했다.

이어 탈무드 도서관 관장인 김농주 목사는 답사를 통해 초기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었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이었다며 이제 그 작은 꿈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개인 사진묵상 집을 제1호로 발간하여 첫 번째 책을 만들게 된 것도 본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탈무드 작은 도서관이 지역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수 목사(교회시스템전략연구소장)의 격려사와 탈무드 작은도서관장 김농주 목사의 설립보고를 하고, 신동석 대표이사의 신분증 전달에 이어 임종억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3부 순서로 내외빈과 같이 도서관개관 컷팅식을 끝으로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목사 이사장 : 정기환목사 사장 : 소진우목사 발행인 :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1면에 이어〉

3·1운동에 새겨진 정의, 평화, 자유의 시대적 사명 감당해야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메시지에서 "암흑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민족대표 33인은 기미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면서"이제 한국교회는 순교선열들의 애국애족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3.·운동에 새겨진 정의, 평화, 자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메시지는 이어"36년간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고 주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하는 일본을 보며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마저 든다"면서"일본은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중단하고 과거 주변국들에 저지른 침략·침탈행위와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인륜적 범죄를 엎드려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메시지는 또한"우리나라와 주변국을 총칼로 유린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우상화하는데 혈안이 된 아베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 징병 희생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앞에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 3·1운동 95주년 메시지

올해 3월 1일은 세계사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3.1운동이 발발한지 9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신음하던 이 땅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3.1만세운동은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집되어 전 세계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친 정의와 평화, 자유의 갈구였습니다.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경술년(1910년) 8월 29일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국권을 침탈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민족 대표 33인은 기미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잔악한 일제는 3.1만세운동 가담자 630명을 살상한 것을 비롯해 수많은 교회지도자들을 투옥 고문하고, 기독교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 징병된 500만 명 중 291만 명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았으며, 정신대라는 이름의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43만 명중에 23만 명이 꽃도 펴보지 못한 채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민족과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된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밑거름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순교선열들의 애국애족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3.1운동에 새겨진 정의, 평화, 자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구태와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개혁과 갱신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교회에 당부하신 사회적 책임과 섬김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아베내각을 비롯한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와 자신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저지른 추악한 역사를 미화하려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섬나라 일본의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36년간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고 주권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하는 일본을 보며 분노를 넘어 측은지심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전범국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는 아베정부와 우익 세력은 오늘도 몰염치한 작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중단하고 과거 주변국들에 저지른 침략·침탈행위와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인륜적 범죄를 엎드려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주변국을 총칼로 유린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우상화하는데 혈안이 된 아베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 징병 희생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양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에 불행한 역사유산으로 고스란히 전수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앞에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3월 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검단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동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젼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 - 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 - 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 - 16 길신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 - 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 - 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5 참사랑교회(강신조 목사)
4 - 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 - 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 - 20 광정성결교회(남봉우 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 - 28 비젼교회(조정현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 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 - 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 - 16 정기노회
22 -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 - 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2013년 5월
3 C채널 TV예배
6-8 참사랑교회 (강신조 목사)
11 주향기교회 (김홍수 목사)
13~15 신일교회 (정병수 목사)
17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19~6월1 2주 연속 특별 심야기도회

2013년 6월
3-5 한교연합수련회(집회)
10-13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4 오산리금식기도원(국해현 원장)
17~19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20-21 국내미자립교회 순방
24-27 진주기도원(김신홍 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10 성산교회(신승종 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여름특강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 소진우 목사)
28 새계명교회(차영아 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3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 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 - 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 - 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 - 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3년 10월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7 대신미디어예배
7 -9 벧엘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연수원특강
20 천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판암장로교회

2013년 11월
4 - 9 선교지방문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18-20 창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서광교회 (김창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 - 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목사)
6 - 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양장로교회
17 한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 - 22 영광교회
27- 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철야(임예제 원장)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봄철 축복대심방
3-5 원천교회(최성근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원장)

2014년 4월
7 - 10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4 - 17 축복교회(배성은 목사)
21 - 22 정기노회
28 - 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2 - 14 나눔애교회(최종덕)
19 - 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 - 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 - 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9 - 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 - 19 벧엘선교센터(서형범 원장)
23 - 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7-10 에덴교회(양화옥 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선희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 - 6 한얼산기도운(이영금 원장)
11 - 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 - 21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5 - 28 천문기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이 · 취임식 가져

권호덕 총장, 양질의 논문을 통해 많은 인재양성에 최선 다짐

예장(순장)총회 학교법인 순장학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난 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 14가길 45-1 대천교회(강 철 목사)에서 제6대 총장 노왈수 박사의 이임과 권호덕 박사가 제7대 총장으로 취임을 가졌다.

강 철 목사(대천교회 담임, 재단이사)의 인도로 총장 이.취임예배가 시작되어 순장총회 부총회장 이재성 목사가 기도를, 성경신대원 재학생들의 특송이 있은 후 순장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행 20:17~19절을 주제로"주님을 섬긴 삶을 회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노왈수 박사(제6대 총장)는 민수기 6:24~27절을 인용 이임사를 했다. 본신대원 이사장 전충현 목사는 이임하는 노왈수 박사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제7대 총장 권호덕 박사의 취임사가 있었고, 김영환 박사(기독교학술원장)의 격려사, 이석제 장로(전국장로회장), 김영선 박사(한국개혁신학회장, 협성대 교수) 등이 축사를 전하고 증경총회장 권정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장 권호덕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순창총회, 신학교이사회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역사 깊은 순장총회의 본 대학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다. 일제 강정기 에도 많은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수 신앙을 지켜온 선배 목사님들의 그 전통을 생각하면 사명감이 막중하다고 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어 맡긴 일을 수행해온 세분의 선임 총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힘써 일하겠다며 총회와 이사회에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임총장 권호덕 박사

이날 신임총장 권호덕 박사는 "총장이란 막중한 직책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요즘 밤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교단신학이기 때문에 교단이 요구하는 인재양상에 있으며 특별히 종교개혁을 위하여 개혁신학을 전적으로 가르쳐서 이 시대가 원하는 교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원우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동시에 성경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갈 생각이며, 아울러 본 신학대학을 호감을 갖게 하는데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하게 교수들의 강의하는 모습이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 총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특색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성경신학대학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곳이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신학교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단 신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양실의 논문이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할 것이며, 결국 좋은 논문들이 발표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학대학교로 인식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총장 권호덕 박사는 취임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오후 2시 총동문회를 개회하고 제2대 동문회장에 총회장 지태영 목사(한빛전원교회)가 선출되고, 부회장 김일수 목사(동신교회), 총무 서전환 목사(안천교회), 서기회계 겸직 엄광일 목사(한사랑교회)가 동문회 제2대 임원이 되었다. 회장 지태영 목사는 신임총장 권호덕 박사와 뜻을 같이하여 교단발전과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고 마쳤다.

한보협, 제29대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재추대

어려운 교단 돕고 많은 교단 영입하는데 힘쓸 터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2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루이시 기념관에서 40여 교단 대표 총회장 총무가 총대로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75)를 만장일치 재추대했다.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인도로 총회에 앞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한홍교 목사(예장 호헌총회장)의 기도, 이창희 목사(예장 합동보수 총회장)가 살전 5:16~18절을 봉독하고 복음가수 박장미 목사(홀리S 예술무용단)의 특송이 이어졌다. 법인이사 김 암 목사는"감사는 영양이고, 영약이다"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 고병수 목사(기독교한국성결회 감독)는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정명구 목사(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 총회장)는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각각 기도하고, 협의회 법인이사 사금열 목사의 봉헌기도와 협의회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제29차 정기총회가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사회로 신한철 목사(예장 합동교수 총회장)의 기도와 회원점명으로 총회가 개회되었고 각 종보고와 안건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대표회장 선거에 들어가 전형위원장 한홍교 목사와 각 교단 총회장이 전형위원으로 10분간 모임을 갖고 신임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한 전형위원장은 이범성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었음을 설명하고 공포했다.

임기 2년의 행보에 들어간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이날 정관개정위원회 설치, 이단·사이비 대책 공청회, 노인요양시설 효도방문 봉사, 6·25상기 기념예배 및 세미나,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8·15 광복 기념예배 및 세미나, 교회세법 세미나, 성탄절 행사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봉사 등 올해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또 지난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반대운동 경과를 보고하고 한국사회의 WCC 확산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올곧은 성경관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 WEA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어 고려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은 교단확장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교계에 본 협의회가 보수신앙을 심어주고 고취시키면서 한국교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회가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한 교단들이 단합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같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보수를 지향하는 교단들이나 선교단체를 영입하는데 있고, 벌써 몇몇 교단들과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회원교단도 영입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는 WCC 척결운동에 앞장서 온 결과 약한 교단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약한 교단을 돕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교단일수록 한보협에 가입한 교단들이 힘을 합쳐서 돕는다면 약하고 어려운 교단들이 힘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제29차 정기총회를 가진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보수신앙을 지향하고 교육자들의 유대와 친목을 목적으로 19개 교단 지도자들이 1978년 5월 25일 지도자 협의회를 발족했다. 참여 교단이 많아지면서 본 협의회는 1980년 1월 10일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로 명칭을 개명하여 정식 설립되어진 단체이다.

또한 한보협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확증하고 보수하는 일이며, 아울러 본 협의회는 진리를 거슬리고, 성경을 왜곡하며 말씀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합된 교단들의 협의체이다.

한편 한보협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자벽으로 임원을 선정하여 본 회의장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가 신임원을 선정 임명하되 각 교단장에게 통보해 달라는 총대들의 의사에 따라 회무를 이창희 목사(합동보수 총회장)축도로 마쳤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10월 한국대회 연기

한기총은 "한국총회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며, 좀 더 내실 있는 총회 개최를 위해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분열로 인해 연기됐다.

2월 13일 WEA에 따르면 WEA 국제이사회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복음주의 공동체 내부 분열로 인해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하려던 차기 총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WEA는 "4년 전 한국을 총회 개최지로 선정하고 당시 한국복음주의교회의 대다수를 주도하고 있던 한기총과 함께 총회 기획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올해 한국에서 총회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WEA는 "이번 결정은 총회와 관련한 모든 계획의 진행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총회 장소 및 일정 발표를 준비하겠다"고 말해 한국 개최를 사실상 취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기총은 "한국총회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며, 좀 더 내실있는 총회 개최를 위해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WEA는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연합체로, 6년마다 총회를 연다. 한국에서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한기총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강수목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333 중보기도 운동

할레루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CBS TV 비전특강을 인도하는 조강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333중보기도 운동이란?
3. 3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3. 3백명의 기드온 용사처럼
3. 3분간 합심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운동

■ 동참하는 방법
성도님들의 삶속에 기도가 필요할때 즉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예)○○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자녀가 수술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이름과 본인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보내주신 문자내용은 전 중보기도 회원에게 문자로 전달 됩니다.
· 문자내용을 받는 즉시 전 중보회원은 3분간 장소구애없이 합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도 할 것입니다.
· 중보기도 신청번호(010-9300-0695)이곳으로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 중보기도 회비(월5천원) 계좌번호: 농협301011-94-81821 예금주: 영광교회
· 입금하시고 문자주시면 바로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조강수 목사
· 영광교회 당회장
· CBS TV 비전특강 강사
· CTS TV 빛으로소금으로 강사
· 중보기도 사역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부설)중보기도사역원 인천 서구 가좌4동 4-24번지 032)575-1654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지지율 상승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의 지지를 높아져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의 난동에 가까운 저항 속에서도 소리 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진행해 온 정치 국방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역대 대통령 누구 한 사람도 개혁을 제1의 모토로 삼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정권을 잡으면 곧 권력굳히기 구태로 돌아가거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여 역풍을 맞고 레임덕에 빠지기 일쑤였다. 친북정책에 빠져 국가보안법 폐기를 시도하고 선거에 개입 했다가 탄핵을 당한 노무현과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맺었다가 된 서리를 맞고 눈치꾸러기로 임기를 마친 이명박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달랐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과 국가관을 국민에게 알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쓰러져 가는 한나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보안법을 지켜 내는 등 신뢰를 쌓아왔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생경제 발전,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 속에 원칙 있는 대북한 외교,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실천을 강조했고 약속했던 정책들을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 속에서도 하나하나 지켜 나갔다. 그 결과 정치권의 종북 분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좁아 졌다. 정책의 일관성이 확인되면서 침체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이 모두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대통령을 믿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만들어 낸 시너지 효과다.

안보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은 확고한 국가 안전에 역점을 두고 원칙 있는 대북한 정책을 실천해 나갔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존폐에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이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석기 내란음모를 적발하여 통진당을 해체 수순에 들게 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더 이상 교육계에서 분탕을 치지 못하게 만들었고 철도 노조를 굴복시켜 민노총의 독아를 빼버렸다.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던 공기업 노조에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댔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도 세금 낭비를 일삼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파산 신고제를 채택 뼈를 깎는 개혁을 예고했다. 새어나가는 혈세만 줄여도 복지 충당금이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혜안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뉴스에 부동산 시장 매매가 부쩍 늘어 작년 이맘때 매매율의 4배에 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은 곧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고 건설경기 활성화는 일자리 신장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라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소비재 시장의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 또한 국내 기업인들과 외국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에 적극적이라서 일자리도 늘어가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쯤이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조리 척결과 아직도 종북의 잔당이 남아서 분탕질을 치고 있는 정치판의 개혁이지만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아직까지 종북의 때를 못 벗은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정부 정책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이제는 그 힘도 다했기 때문이다. 1년 내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10% 내외로 떨어진 비참한 지지율이고 대선불복의 빌미로 삼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도 한낱 조작에 의한 모략과 중상이었음이 하나하나 들어나 도리어 음모의 주체들이 조사 받을 차례를 기다리는 현실이고 통진당 궤멸로 정부 교란의 동력을 잃은 데다 경제가 바닥난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에 목을 매고 우리 정부의 요구조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용공을 부추길 여력도 없다. 이 모든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국민이 만들어 낸 힘이다.

그 동안 야당은 박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언을 연발한 현오석 부총리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즉각 경질했다.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실언을 했기 때문인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오늘은 전남 염전의 노예 근로자들과 러시아로 이민 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안현수에 대해 언급 했다. 철저하고 꼼꼼한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인 만큼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남 해안의 섬 노예 범죄도 뿌리가 뽑힐 것이고 체육계의 부조리도 뿌리부터 근절될 것이다. 종북 친노의 주장에는 불통이지만 민생에 관한 사안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진정한 개혁의 주체 박 대통령의 믿음직한 모습이다.

그래도 남은 골칫거리는 정치개혁을 주문 외듯 읊조리는 정치판의 부랑아 들이다. 마치 TV에서 방금 끝난 만화영화를 할머니에게 도로 틀어 달라고 땅바닥에 뒹구는 네 살 배기 같이 정치검찰 윤석렬을 제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떼를 쓰면서도 정치개혁만은 입에 달고 사는 민주팔이에 개혁 장사꾼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철딱서니 없는 야당의원들과 청개구리 같이 개헌을 외쳐대며 사사건건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이재오 같은 인간들 말이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빗자루로 쓸어내고 싶지만 의원 임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내 신세가 한탄스럽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유출 당신의 안전은?"

교회정보기술연구원, 개인, 기업, 은행정보 등 세미나 개최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정보 보안 및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때, 소중한 우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지침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렸다.

비밀번호 유출이 가져오는 파장 '어마어마해'

교회정보기술연구원(원장 이동현 목사)은 21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당신의 개인정보, 기업정보, 은행정보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현 원장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돼 버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와 돈 관리법에 관해 강의했다.

스마트폰 가운데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휴대폰 사용 전 자신의 지메일(gmail) 계정을 설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의 지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이 원장은 "누군가에게 내 지메일 계정의 비밀번호가 노출됐다면, 그 사람은 내 메일을 비롯해 인맥 정보, 일정, 동선, 웹서핑 정보(검색 내역) 그리고 통화 목록과 문자 목록도 알아낼 수 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원격으로 내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까지 노출되는 것과 같다.

이 원장은 "다른 사람이 메일을 열어본 경우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있는데, 메일에는 메일을 열어보고도 미확인 메일처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폰에 누군가의 이메일을 세팅해 놓기만 하면 일일이 웹으로 접속하지 않고도 남의 메일을 훔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에 저장된 주소록은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구글행아웃 등의 서비스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소록과 SNS를 찾아 개인의 일상과 이야기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 원장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거나 위치 정보를 확인할 경우, 지메일을 통해 나의 동선이 구글맵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메일 사용자가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누군가 악의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내 통화 목록과 문자 목록을 알 수 있고 저장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밀번호 관리가 관건… 목적별로 분류하고 패턴 만들기

이러한 최악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려면 각별한 주의와 관리에 힘쓰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

이 원장은 비밀번호 관리의 네 가지 방안으로 △8자 이상 숫자, 문자, 특수문자 포함할 것 △메일을 목적에 따라 분류할 것 △비밀번호도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만들 것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포털메일이나 지메일의 경우 타사의 메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메일을 사용하되 메인 메일에서 일회용 메일, 개인 메일, 업무용 메일, 공과금 납부 수신 메일 등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를 목적에 따라 분류할 때도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그에 맞게 분류하면 비밀번호가 여러 개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웹사이트(http://howsecureismypassword.net)를 통해 내 비밀번호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 만에 해킹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대처법에 관해서는 △정확히 어떤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와 블로그, 검색엔진에 삭제를 요청하고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을 권했다. 삭제 요청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원장은"인터넷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잊혀질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의 게시글이나 개인정보 등을 삭제해주는 업종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나고 있다"며"개인의 정보 유출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TS스페셜 한국교회를 論하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CTS)가 진중한 성찰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생방송 'CTS스페셜 한국교회를 論하다'(이하 '한국교회를 論하다')가 10여 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북한 인권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월 21일(금) 생방송으로 방영된 '한국교회를 論하다'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노정선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상임대표),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강철호 목사(새터교회 탈북민1호 목사)가 출연하여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갖는 의미', '북한 인권 탄압 실태', '북한 기독교인의 실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경석·강철호 목사는"북한에서 자행되는 대다수의 인권유린 대상자 중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더 나아가 한국정치권 과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노정선 교수는"북한의 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인도적인 지원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인내심을 갖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출연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에서 주요 인권 탄압 대상이 된 기독교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을 촉구했다.

제작진은"앞으로도 '한국교회를 論하다'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비기독교적인 주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8일(금)에는 박은조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손봉호 석좌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김진홍 목사(두레마을 대표)가 출연해"한국교회 신뢰도 추락, 원인과 실태"라는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겸용)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합동보수 총무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404-200 인천시 서구 공촌동 314 경남@ 103-506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보수부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양문교회/양문 어린이집

시무 송인섭 장로
합동보수 회계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00-160 인천시 중구 경동 177
☎032)766-7654 0023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북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합동보수 서기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합동보수 회의록서기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사)세성협 제26대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취임

"성령으로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초대회장 故김우영 목사를 필두로 1989년부터 26년간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이하 새성협) 제26대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의 취임식이 지난 2월 21일 3시 방배동 백석대학교 목양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취임식은 본부장 임병재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서석근 목사의 기도. 증경대표회장 김용완 목사의 취지문 낭독, 테너 임승종 교수 소프라노 김은경 교수(백석대학교)의 찬양에 이어 예장백석총회 증경총회장 정영근 목사가 에스겔 37:1~10절 말씀을 중심으로"살리는 지도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공동회장 박응순 목사의 인도로 세성협의 사역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 하였다. 증경대표회장 강헌식 목사는 신임대표회장 정인찬 목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고문 민경배 목사가 취임증서를,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취임패를, 직전대표회장 유순임 목사가 법인기를 전달하고, 교계 각 기관의 축하패도 전달되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국제성령중앙협의회 상임회장 최길학 목사, 한국여교역자목회연구원 이사장 유순임 목사가 축하패를 전달하고, 유순임 목사(직전대표회장)가 축시를, 고문 방지일 목사 고문 민경배 목사, (증경대표회장)권태진 목사, (증경대표회장)주남석 목사, (증경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증경대표회장)오범열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기독교연합신문 대표이사장) 양병희 목사, (국가조찬기도회장) 김영규 장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혜훈 집사, (초원교회 담임목사) 손평업 변호사가 축사를 했다.

신임대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직적대표회장 유순임 목사에게"김우영공로상"을 시상하고,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의 광고, 백석학원 설립자 정종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6대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박사학위 취득,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미기총)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회장 국제성령복음화연합회 총회장, 휴스턴성신클럽 회장, 백석대학교 원장을 역임하고 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국제대표회장, 2017년 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실무대표회장,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기념사업회 대표회장, 백석신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한일장신대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성황

학사 273명 석사 119명 박사 2명 총 394명 학위받아

오덕호 총장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 믿고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길" 당부

한일장신대학교(총장 오덕호)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7일 대학 예배당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제53회 학사·제15회 석사·제5회 박사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73명, 석사 119명, 박사 2명 등 총 39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목민교회), 장덕순 이사장과 이사진, 오덕호 총장과 교직원, 윤갑식 총동문회장과 동문들, 졸업생들과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자들을 축하했다.

1부 예배에서 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깨닫고 현장에서 성실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위대한 역사를 일궈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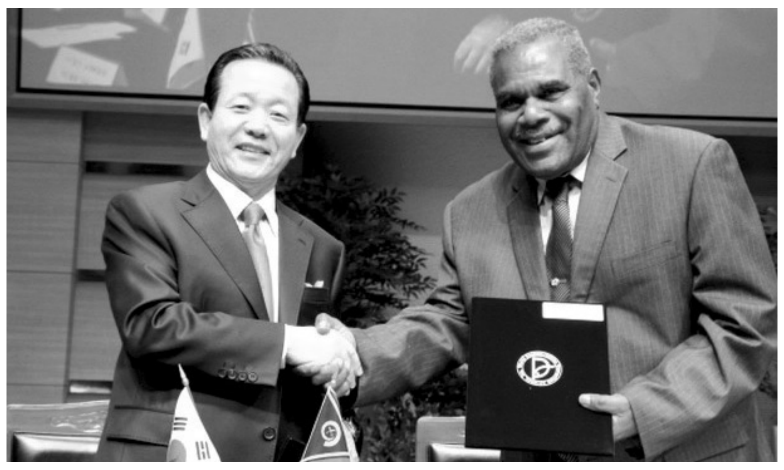
2부 학위수여식에서는 최재용 목사가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학부와 대학원 졸업자 394명이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덕호 총장은 총장권설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대학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받았다"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속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열정적인 헌신을 다하면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학대학원 수석졸업자인 곽은영 학생(신학대학원)이 총회장상을 받고, 학부 수석졸업자인 박정현 학생(신학부)이 이사장상, 정화숙 학생(신학부)이 총장상, 이현영 학생(인문사회과학부)이 총동문회장상, 안향숙 학생(사회복지학부)이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 장은혜 학생(신학대학원)이 전국여교역자연합회장상을 받았다. 또 소양인 학생(사회복지학부)이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 인증서와 함께 전북도지사상을 받았다.

한편, 카자흐스탄 출신인 고갈리나 학생(신학대학원)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현지에서 방문한 축하객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축하공연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초대교회의 선교응답 받고 시대를 치유하는 선교"

세복협, 제18차 세계선교대회 4,000명 참가 성황리 개막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 이하 세복협) 선교총국이 주관하는 제18차 세계선교대회가 20일 서울 장지동 임마누엘서울교회(담임 황상배 목사)에서 49개국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 되었다.

금번 대회는 "선교체험과 시대치유"라는 주제로 2천년 전 초대교회의 선교응답을 받고 시대를 치유하는 선교사역을 다짐하는 대회로 진행이 되었다.

이날 대회 오프닝은 49개 참가국 기수단과 대회기 입장에 이어 대회장 장인성 목사가 개회선언을 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를 했다. 홍재철 목사는 "전 세계에서 참가하신 선교사님을 환영하며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선교열매를 맺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노고에 격려드리며 제18차 세계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예장 개혁 총회장 김송수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복음선교 열정이 각인되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귀한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 최명신 선교사(미국)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었고 야마무라 선교사(일본)가 대표기도를 했다. 이어 명예대회장인 류광수 목사가 설교했다. 류광수 목사는 "그 시대 그 응답" 을 주제로 "구원없는 복음의 상실, 전도축복의 상실, 한국교회의 미자립 현실, 세계교회의 미자립, 후대들에게 불어다칠 어려움 반면에 프리메이슨, 뉴에이즈,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릴것이기 때문에 나와 이시대를 살리는 기도에 일심으로 올인하고, 전도선교에 전심을 다하고 미래 닥처올 영적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까만 지속하여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로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바누아투 정부(알랜나푸키 종교부장관) 및 말라시타프 장로교회(로이로셉 목사)가' 국제복음교류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세복협은 전도학교 개설 및 강사진 정기 파견 등 바누아투 복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 바누아투 정부는 바누아투 복음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한다. ▲말라시타프 장로교회는 전도학교 유치 등 바누아투 복음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있다.

사회복지법인렘넌트(대표이사 황상배, 이하 사복렘)와 바누아투 정부 및 말라시타프 장로교회가 국제사회복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사복렘은 RMC국제 의료봉사단 파견 등 바누아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바누아트 정부는 사복렘의 바누아트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한다. ▲말라시타프 장로교회는 사복렘의 바누아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로 되어있다. 예배 마지막 순서로 조경대 개신대 이사장이 축도하고 단체사진 촬영후 오전 행사를 마쳤다.

2014년 세계기도일 3차지역장모임-결단 및 파송예배

세계의 교회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오는 3월 첫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하는 운동인 세계기도일예배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127주년을 맞는 세계기도일 예배는 현재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00여개 지역, 10여개 교단의 2,000여 교회가 참여 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무력충돌로 인해 이집트의 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의 봄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민주화시위가 3주년이 된 지난 1월에도 타흐릴 광장에서의 충돌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다쳤다.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현실에서 이집트 교회여성들은 생명수를 구하고, 생명의 샘을 넘쳐흐르게 하고픈 소망을 예배문에 담았다. 전세계 교회여성들이 이집트를 위해 함께 하는 세계기도일예배에 이집트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세계기도일 3차 지역장 모임에 결단 및 파송예배가 지난 10일 연동교회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게 하라' 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임성이 총무 신미숙, 세계기도일위원장 김명숙 등이 주체로 진행된다.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2014년 표어"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훈련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문화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비전 2020
1. 열정적 전 도 2. 전인적 양 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 배
5. 기쁨의 봉 사 6. 즐거운 교 제
7. 능력의 선 교

담임목사 이춘복

예배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대예배홀(3층)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홀(3층)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홀(3층)
주일청년예배(4부)	1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1세미나실(2층)
주일오후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홀(3층)
수요예배		오후7시(하)7시30분	대예배홀(3층)
수요심야기도회		오후8시(하)8시30분	대예배홀(3층)
새벽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부교역자
부 목 사 김성집(010-3344-7204)
최성일(010-8802-0277)
이정훈(010-7192-9749)
최영만(010-3062-4665)
고두빈(010-9862-2046)
서경훈(010-9066-6592)
윤영배(010-9895-8277)
찬양목사 이인섭(010-8727-6167)
전 도 사 손원경(010-5245-4662)
정의한(010-5475-0004)
강요한(010-5048-9622)
교육 전도사 서은영(010-3785-7990)
김평화(010-7103-9129)
임상규(010-6474-0701)
파송 선교사 김상식 . 이성진(필리핀)
김징우 . 박은원(인도네시아)
방송간사 유호준(010-2012-0807)

시무장로 및 협동장로
■시무장로
강성재 이선훈
임승수 장현용
김대웅 강권하
전영수 이환근
정인호 박석환
강성학 김상근
김문하 나찬영
지윤섭
■은퇴장로
배재호 정현철
황이만 정형규
■협동장로
김태일 윤방식
엄익범 심상길
김홍기 정강희
김효구 조성덕

찬양지휘자 및 반주자
찬양지휘 김성강 윤석민 류현주 배영혜
오케스트라단장 차추남
피아노 서혜원 김찬미 김서진 이태리
오르간 이지영
신디 장은경 김소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사단법인 한국보수교단협의회

담임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157-881 서울시 강서구 확곡1동 348-21 호용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

가정예배

3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십계명(5)–무엇으로 살것인가?

찬송가 288장 성경: 신명기 5장11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돈을 의지하고 돈이 최고인 사람은 노동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안식을 잊고 돈이 최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돈에 의해 울고 웃고 사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5)–무엇으로 살것인가?

찬송가 57장 성경: 신명기 5장12절-15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동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안식일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안식을 잊고 돈이 최고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에 의해 울고 웃고 사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7)–하나님 사랑 그 다음

찬송가 304장 성경: 신명기 5장16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 그다음은 이웃사랑입니다. 부모사랑은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 다음은 부모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7)–주인은 따로 있다.

찬송가 304장 성경: 신명기 5장17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정면승부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웃의 생명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나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8)– 순결한 가정

찬송가 235장 성경: 신명기 5장18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한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와 관계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기며 간음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살아가는 순결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10)– 거짓이 아닌 진리로

찬송가 400장 성경: 신명기 5장20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이웃을 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함께 구속받은 형제를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11)– 땅이 아닌 하늘

찬송가 539장 성경: 신명기 5장21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을 품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땅에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미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탐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이웃에게 나누며 또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십계명(12)– (결론)너는 기억하라.

찬송가 410장 성경: 로마서3장20절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할 때 비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거기 복 내리시는 곳

찬송가 525장 성경: 시편133편1절-3절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하님의 복이 임합니다. 물질과 권력만이 복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이 있는 거기가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그 한마디를 위해

찬송가 350장 성경: 마태복음25장14절-30절

어떤 이들은 기쁨도 없이 축복만을 받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축복을 받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 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다시 오실 때 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공의

찬송가 248장 성경: 신명기16장18절-22절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망합니다. 우리들 가정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칼럼

노숙인 복지 대책은 없는가

삶에 있어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이다. 그중에 배고픔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가난에 얼룩진 삶을 살아왔다. 6·25전쟁과 더불어 피난길의 패고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리밥 한 그릇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다. 허리를 졸라매며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그 후 잘 살아 보자는 구호를 내걸며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선 새마을 운동은 오늘의 경제국으로 등장시켰다. 세계의 선진경제국은 그 나라의 복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은 국가 발전과 더불어 안정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도 복지에 대해 세심한 계획을 세워 어린이 유치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음은 옛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계어려운자들에게 매월 생계비와 경로교통비 등을 급수에 따라 조금씩 지급하고 있음은 국가 복지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또한 어두운 면이 있다. 그것은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외되어 가출되어 있는 노숙인 들이다.

노숙인들 중에는 공직에서 떠난 사람들 공직퇴직자, 교직퇴직자, 종교계인사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출하여 갈 곳 없이 방황하면서, 자원봉사 조직에서 제공하는 노숙인식사를 찾아다니며 점심과 저녁을 얻어먹고 있는 노숙인 들이다.

현재 노숙인은 전국적으로 3만에서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기차역 버스 주차장 등을 배회 하면서 겨울 추위에 떨면서 얻어먹는 걸인 노숙자들이다. 한겨울에 신문지 한 장을 콘크리트 바닥에 깔고 몸을 움츠리고 잠을 청하는 노숙인 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G20경제국에서 앞서가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두움에 처해 있는 노숙인에 대한 정책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오랫동안 노숙인 생활을 하게 되면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들은 취업의 생각이 없게 되며, 심리적으로 하루하루 얻어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두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각지에 산재해 있는 노숙인 들을 방치한다면 안정 사회를 이루는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숙인 정책 대안으로 각시도별로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수와 인적사항을 파악해 그들의 지난 경력들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여 적절히 일할 수 있는 가내공업에서부터 기술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취업의 길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그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가정책 대안으로 일정한 도서지역을 선정하여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서 기능교육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거용 아파트를 제공하고 노동취업인으로서의 월급은 주도록 한다면 활기찬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 해이한 노숙인들을 권력을 동원 해서라도 참여시켜 생산기업에서 일하며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과 아울러 안정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적 화합은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배려가 요망된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 요 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셉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03-81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2014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다니엘서 6장 강해 (15)

사자의 입을 봉한 다니엘의 절대 불변의 신앙

단 6장「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신앙」

4.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20절)

다니엘의 신앙 상태: 사자굴 에서도 해를 받지 않음. 다니엘은 순교신앙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신앙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20~23절)

6:20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왕이 사자 굴에 급히 달려와서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부르는 것은 왕 자신도 다니엘이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시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마지막 때에 '십사만사천의 종'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지만 굳이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말로 표현한 것은 현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은 심한 병을 주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주셔서 심령을 살리기도 하신다. 여하튼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생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생명이 아니다. 이미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자기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살리는 역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니엘의 생명이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을 예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오늘 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만 치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다리오왕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육신 목숨을 구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 굴에서 육신의 목숨만을 살려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니엘에게는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초월되었다. 다리오 왕이 보는 하나님과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다리오왕이 보는 하나님은 항상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자 굴에서도 능히 육신 목숨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이다.

이와 달리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기 이전부터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목숨은 없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다니엘의 목숨이다. 그러므로 사자 굴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육신의 목숨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다리오 왕의 차원임) 다니엘의 신앙 수준은 십사만 사천의 영광을 입혀주는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 십사만 사천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심을 보고 있다. 6:21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면서 왕을 축복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리오왕의 명령으로 자신이 사자 굴에 던져졌으니 원망스럽겠지만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 다니엘은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자 굴이니 보편적으로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러한 왕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왕의 명령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밝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악한 자로 하여금 올무를 놓게 하여 그 올무에 다리오왕은 자기의 교만으로 결려들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 진 바 되어 진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곧 다니엘에게 '십사만 사천',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서 일하는 그 생명에 따른 하늘 영광을 덧붙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 던지도록 허락하셨음을 밝히 알고 있다.

이러한 다니엘 같은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다음에는 믿어야 되며 믿은 다음은 자꾸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 서 있어야 사자 굴에 들어가도 궁극 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며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언론부흥협 부총재

설교

시작할 때에 끝날 때를 생각하라

시작할 때 시작을 알리고 마칠 때 마침을 고하는 행사들이 있다. "시무식, 입학식, 취임식, 종무식, 졸업식, 이임식"이 그런 것들이다. 재미있는 탈무드 이야기를 몇 가지 들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 갈 수가 없었다.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을 굶었다. 그래서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배불리 먹고 다시 밖으로 빠져 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올 때처럼 다시 사흘을 굶기로 했다. 몸을 홀쭉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 나왔다. 허탈해진 여우가 중얼거렸다."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나는 이 한해의 시작이 어떤 모습인가?:

'심을 때와 거둘 때' -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나요?""글쎄요, 아마도 30년 후면 열리겠지요."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영감님께서 그 때까지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오래 살아도 그 때까지 살기 힘들겠지요."나그네가 다시 물었다."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 할 나무를 심으십니까?""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었소.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요." 나는 무엇을 심겠는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 특별히 남을 헐뜯은 일이 있었다면 이제 새롭게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중상모략은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 때문에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망한다.「연말정산을 생각하며 시작을 멋지게 하자.」 지난 일 메인 것을 풀고 가면 좋겠다. 분노와 증오의 비수를 들고 시작할 수는 없다. 미움을 거두고 평화를 시작하자. 평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동전이 한 개 들어 있는 항아리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시작하는 이 한해의 내 항아리는?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 할지어다.'(마25:21)

이효은 목사
언론인 부흥사회 총재

축의금과 친구

축의금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위세인가 마음의 우정인가 마지못한 인사치레인가. 내 아들 결혼식 때 친구가 축의금으로 백만 원을 했다. 그때는 친구가 퍽도 고마워 콧등이 시려오는걸 겨우 감정을 눌렀다 친구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

얼마전 친구로부터 아들 결혼 청첩장을 받았다. 웬지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살기에도 빠듯한 삶이기에 어떻게 축의금을 챙길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마누라와 상의를 한 결과 빚을 내서라도 백만 원의 축의금을 하기로 했다. 축의금이란 축하로 주는 돈이기 이전에 상부상조 한다는 뜻이란다.

빚을 낸 돈으로 결혼식장에 갔다.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바쁜 틈에도 안부까지 물어줬다. 아내와 나는 돈을 얻어서라도 빚을 갚게 된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으로 등기우편이 배달되었고 발신인이 며칠 전의 친구에게서 온 것이라 웬 인사 장을 등기로 보낼가 뜯어 봤더니 눈 익은 친구의 글이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형편 다 아는데 무슨 축의금을- 축의금이 뭐냐고- 우정 맺힌 나무람이었다. 자네 살림 어려운 것 아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우정을 돈으로 사려고 했느냐는 나무람이-그리고 구십구만 원의 수표를 보내왔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친구야 어려운 자네 형편에 백만 원이 무슨 소리냐-만원이면 족하네--여기 구십구 만원 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안 받는 다면 자네를 친구로 생각지 않겠네-- 그리고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틈이 나면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우동 한 그릇 하자는 말을 곁들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미국 CBS 방영 – 이집트 실화사건

얼마 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실화는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CBS에서 방영된 내용이다. 한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8살 먹은 딸과 갓난아기를 살해한 이야기이다. 부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기에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 남편은 두 딸을 산채로 묻어버렸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났는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가 모래 밑에 깔려 있는 어린 두 여자아이를 발견한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다.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이 큰 딸을 인터뷰했다. 방송 여기자는 무슬림 터번을 쓰고 있었다. 이 딸에게 땅속에 묻혀 있을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물었다.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 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큰 딸은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 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셨다. 그분은 양손에 못 자욱이 있었으며 이분은 예수님이셨다. 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다"고 했다. 생방송이였기에 방송국에서 정지시킬 수가 없었고, 이집트는 물론 주변 무슬림 나라들이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배시간안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웨스트민스터 순천신학교(총회인준)
모집학과 및 자격특전 "정통 신학의 요람"

신학부	학과	학재	자격
신학부	신학과 목회학과	8학기	고졸,세례받은 자 학력제한없음
신대원	신학과 목회학과	4학기	신학부 졸업 및 예정자
특수 목회반	-	8학기	1. 청년퇴임 및 정년퇴임 예정자 2. 퇴임후 30년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원하는 자
평신도 성경강좌	-	4학기	장로,권사, 집사 직분자

■ (수시개강)
· 본 신학교는 한국장로교단이 사용하는 대소요리문답의 신조를 신봉하는 정통교단이며 한국교회를 리더 하는 표준교단으로 우수한 최고의 교수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본 교단은 한기총과 한장년 가입교단입니다.
· 아동 청소년 복지상담 지도자 · 노인복지 심리 상담사
· 다문화가정 복지 상담사 · 도형심리 상담사
· 여성복지 상담사 · 음악. 미술심리 상담사
· 특수아동복지 상담사 ·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사

목사. 전도사. 평신도지도자.
후보생 수시모집!!
목사안수 및 교단가입 문의환영

학장 정원춘 (Th.D 신학박사)

주소:전남 순천시 동외동 191-2
TEL 061-752-0191 HP 010-9049-3731

웨스트민스터 광주신학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78-10번지
전화 : 010-2778-3731

지저스타임즈는
구독료와 광고로 운영됩니다.
저의 신문 방송은 자유로운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구독자 성함으로 입금 협조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년 구독료 48,000원 ▣
· 신한은행 314-12-250410
·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우 체 국 310029-02-152769

바른소식을 전하는... CJTN TV 기독뉴스지저스타임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전화 : 070-8230-0034
Fax 겸용 : 032-672-3031
광고문의 : 016-478-6574, 010-5468-6574

■ 인물탐방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선교의 비젼

300명의 선교사역자들과 함께 사단법인 코람데오선교회를 발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 김창룡 목사, 박영미 상담목사 부부는 세계를 향한 의료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식을 줄 모르는 신념과 열정으로 중국과 북한 선교에 있으며김모세, 김바울 두 형제도 미국과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의료선교를 통해 필리핀에서도 1만 명이 넘는 치료를 하고 있다.

김창룡 목사는 현재 치유와 회복의 집, 치유와 회복 수양관, GDFC 비전센터, 국제문화예술선교신학원, GDFC 송산 은혜동산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등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로 국제 중보기도 팀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토대위에 더 큰 비전을 갖고 5대양 6대주를 향해 날개를 넓게 펼쳐나갈 기획을 세우고 선교활동에 뜻을 같이할 300명의 사역자를 찾고 있으며,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중보사역자, 찬양사역자 등 300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사단법인을 등록하면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정식 발족예배를 드리고 선교활동을 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디트로이트 신학교에서 한국에 선교신학캠퍼스를 세우고 오픈했다. 선교는 김 목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던 중 선교사들이 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다며 그간의 경로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 교단교파를 초월해 새로운 선교회를 조직하자는 제안이 박모 목사로부터 들어왔고 검토한 결과 2월 24일 예정으로 코람데오선교회를 발족하게 된다.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선교를 펼치고 싶은 분들이 주축을 이루어 나가는데 뜻이 있다. 여기엔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찬양선교사, 평신도 등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분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신사도행전의 선교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열심히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각자가 가고픈 나라를 지원하고, 그 나라의 선교사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해서 선교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참고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신문방송에도 연재할 계획이다. 현지 실태를 조사한 기록을 신학교에 자료를 제공하되 방송과 신문을 통해 전달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존의 신학교의 학사과정이 아닌 오직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선교신학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양육하는 선교신학교이다.

또한 본 선교신학교는 계절 학기를 개설해서 쉬지 않고 현지선교사들이 교수가 되어 선교현장에 나가 섬기며 봉사하고 배우는 실습을 거쳐, 선교사 개개인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 파송되어 현지 선교사들과 같이 섬기고 사역하는 일들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리포트를 통해 논문을 제출하고, 실천신학을 체험하게 하는 신학교를 개교한다.

김 목사의 아들 김바울 선교사는 군을 제대하고 의료선교로 중국에 들어가 중 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 석사를 거쳐 박사가 되었다. 그는 실기가 필요하지만 기존병원보다는 오지를 선택해 의료 선교를 하는 목사들과 연합하여 아주 어렵게 살며 힘들어 하는 나라와 오지를 돌면서 약 4개월간 의료선교를 하는데, 1만 명을 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가고 한다. 당시 선교활동에 대해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한다.

책상에 앉아 선교전략을 구상하는 것보다 실지로 이론이 아닌 몸으로 체험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로 신문방송에 연재될 것이며, 한국선교에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300명의 회원이 결성되면 법인등록을 하고 곧 선교발족대회를 2월 24일쯤 갖는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세계에서 기업선교의 회장이 한국에 들어와 김 목사에 대한 예기를 많이 들었다며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 35,000명의 기업선교사를 두고 있으며 40년의 역사를 가진 대기업의 회장이다. 그는 김 목사에게 아시아에 기업선교를 기획 중에 있다는 설명과 선교사역에 대해 의논을 하고 비전을 안고 미국으로 갔다.

대기업 총수는 한국, 중국, 홍콩에 있는 크리스천 기업들과 연계하여 전문인 선교사를 그곳 기업에 파송해서 직원들의 상담을 맡고, 신앙지도와 기도를 해주는 등 사역에 힘쓰고 있고 했다. 그는 또 코람데오선교회가 발족되는데 축하를 했다.

김창룡 목사는 중국선교사역에서 북한사역이 연결되어 나진 선봉지역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던 중 정책적으로 잠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을 통해서 나진 선봉에 3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짓는데 길이 열렸다고 했다. 그때 김 목사는 직접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의 자문역을 맡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김 목사는 중국에 국적을 둔 조선족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북한에 들어가 장터에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지만 미국선교사들은 북한을 돕기는 하지만 결국 돈만 빼앗기고 만다.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김 목사는 북한선교의 자문을 맡은 가운데 3년 동안 북한선교가 잘 진행되었다고 한다.

결국 월드브리지 미국 예수 전도단 총재의 라인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고아원을 짓고, 금년 3월에 오픈하게 됐다. 이 팀들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김 목사의 교회를 찾아왔고 선교전략을 의논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또한 미국 캐리톤 처치의 선교담당 목사도 본 교회를 방문하여 김 목사의 사역을 브리핑 받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본 교회는 세계적인 선교기관들과 협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코람데오선교회를 발족하게 되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김 목사는 365일 마음이 선교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나진 선봉에 북한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고아원이 완공되어 3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선교사들이 북한에 돈과 선물을 안겨주면서도 죄인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김일성 동상에 참배를 안 하고, 선교사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나진 선봉지역에서 고아원을 지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배경은 김 목사의 작품이었다. 북한에 가기 전 김 목사를 만나게 됐고, 여기서 당당하게 나갈 것을 주문했고, 그 결과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의외로 북한은 김일성 동상에 참배 거절과 주일날 예배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날로 부흥성장하고 있는 교회, 개척처음부터 어려운 가운데도 중국과 북한선교에 중점을 두었던 김창룡 목사, 박영미 목사... 부모님의 돈독한 신앙사상에 힘입어 두 자녀 김모세, 김바울 선교사가 있어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다. 이들 가족은 교파를 초월하여 상처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축복받은 목회자이다.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중보사역자, 찬양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소문난 교회이다. 지금도 김창룡 목사, 박영미 목사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잇는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강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많다며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

경인백석신학교 신 · 편입생 모집

※ 소명의식이 확실합니까? 속히 오십시오
※ 학문의 시간을 놓쳤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 세계를 무대로 활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학생모집 범위는 이단을 제외한 초교파입니다.

학장 정기환 목사
(D.Ed., Th. D.)

●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백석총회 인준신학교로서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 (사)기독학술원 이사장
- 국제기독교지도자협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 〈저서〉조직신학개론 외 25권
-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 캐나다크리스천대학교교수
-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총회인준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양식)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신앙면접

● 특전

· 본교 소속교단(백석총회)으로부터 남, 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학과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8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학과	1~3년	타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 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 이번 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역사신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김남수교수(교회성장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소정교수(음악사):(D.S.M)(獨)Goettingen National Universirsity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강석현교수(신약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실천신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마호인교수(성경신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역사신학):(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무용학과 : 김희선, 조은희, 최재옥, 전병희교수 외

경인백석신학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7(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 : 010-2956-9191, 050-5555-9191
E-mail : Keyone209@hanmail.net
· 교학처장 : 김남수 목사 · 학생처장 : 박준민 장로
· 서무담당 : 이인애 · 교무담당 : 전병희

•논평

방향감각 잃은 비판적 보도에 의한, 악플 테러

지난 2월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슬람에 의한 한국인 성지순례객에 대한 폭탄테러가 일어나 한국인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창립 60주년을 맞는 진천중앙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 교인들 중심으로 성경적인 지명(地名)을 따라 여행한다는 목적이었다.

이곳이 소위 '쟈스민 혁명' 이후 치안이 혼란하다는 것 말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코스로 꼽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을 비켜가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여행객에게 폭탄을 터트리는 악마적 행위를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고한 사람들에게조차 무차별 흉포한 살상(殺傷)테러를 가하는 이슬람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왜 이런 지역에 갔느냐는 비난의 목소리이다. 특히 '악플러' 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언어 테러를 퍼붓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쳐가다가 폭탄테러 당했네. 다 뒤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버리지 아깝다' '왜 0발 여행위험국가에 쳐가서 죽고 그러는데 0물교회0발것들부터 개독교들 세계구 민폐' '잘 하고 있다. 개독년놈들 보이는 족족 테러해라~ 참수도 하고.. ' '성지순례하려다가 주님에 품에 안겼으니까 천국행 고속열차 탄거 아니냐?...' 등 같은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악플들을 쏟아내고 있다.

같은 국민들 가운데 무고하게 희생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세력에 대한 비판보다는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치 철천지원수처럼 저주를 퍼붓는 말들은 토사물보다 저급하고, 비수보다 예리하여 아픔을 다시 후벼 파기에 이른다.

'악플러' 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1차적으로는 언론들의 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 사건을 사이트들이 게시한 것은 20일 현재까지 8,500건이 넘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건도 2,600건이 넘는다.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비기독교인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및 신뢰도를 살펴보면, 교회 책자와 홈페이지를 본 사람의 46.4%가 기독교에 신뢰도를 보인 반면, 인터넷과 SNS에서 정보를 접한 사람의 74.4%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방송을 통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53.6%도 불신을 하게 되었다.

즉, 기독교를 직접 접해 보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언론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실제와는 관계없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언론 보도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한 것을 살펴보면, '일부 교회 위험 무시하고 순례객 모집' '종교적 열정에 위험지역 알면서도 선교·순례 강행' '또 안전 불감증이 자초한 폭탄테러 참사' '또 중동 테러로 한국인 희생...위험지역 여행 자제해야' '중동지역 성지순례 안전 논란' 등의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이 '악플러' 들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가장 먼저 보도해야 할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선량하고, 소박하게 여행 목적에 따라 나선 사람들을 무차별 테러하는 집단과 그 목적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살인자를 두둔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EU(유럽연합)가 금번 이슬람의 폭탄테러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 같은 언론의 태도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기독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까지 피해갈 수 없다.

이번에 이집트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어떤 사람들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그들은 성지순례 여행길에서 테러를 일으킨, 타종교에 자극을 줄 어떤 행위도 한 바 없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지나친 '악플' 의 패악적 행태이다. 상황이 어떤 것이든,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당했던지 간에, 저주와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슬람의 테러리스트 못지않은 인격살인과 사회적 건강성을 해치는 2차적 테러이며, 암적(暗的) 행위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와도 거리가 멀고, 건전한 비판과도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악플들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포털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여, 이 땅에서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도 이 문제에 대하여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모독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인격 살인과 종교 모독을 서슴지 않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 공간이 더 이상 언어 오물의 배설구가 아니라, 건전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아픔과 상처는 보듬어줄수록 빨리 아물지만,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악플' 활동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파괴함은 물론, 사회 병폐를 키우는 숙주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언론의 왜곡된 보도, 이를 여과 없이 게재하는 포털사, 그 속에서 이유 없이 쏟아내는 '악플' 들은 우리 사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불신의 늪으로 끌어가는 '좀비' 와 같은 것이다.

대표 김승동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환영 성명서

한영훈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20일 오후 금강산에서 3년 4개월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즈음하여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오늘부터 엿새 동안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남북한 1천만 이산가족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딛고 모처럼 대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의 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해 9월 추석 전후에 성사 단계에서 북측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무산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번에도 논의 과정에서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또 다시 무산되는 게 아닐까 염려됐으나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로 성사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애끓는 심정으로 보내온 시간 앞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군사적 고려나 이념적 명분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박고 "차제에 이산가족이 연중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상봉 행사를 정례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또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대화의 끈을 이어간다면 정치·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장차 남북이 평화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남북한 1천만 이산가족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며 환영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딛고 모처럼 대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의 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9월 추석 전후에 성사 단계에서 북측이 아무런 이유없이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무산됐었다. 이번에도 논의 과정에서 북측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또 다시 무산되는 게 아닐까 염려됐으나 우리 정부의 인내와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로 성사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애끓는 심정으로 보내온 시간 앞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군사적 고려나 이념적 명분도 용인될 수 없다. 남측에 있는 12만9천264명의 이산가족 중 이미 5만7천여 명은 고인이 됐고, 남은 7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이 80세를 넘긴 고령이 되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신청자가 가족을 만나는 데 무려 72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제에 이산가족이 연중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상봉 행사를 정례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산가족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에는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와 군사적 이슈가 또 다시 걸림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대화의 끈을 이어간다면 정치·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장차 남북이 평화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민노총 폭력투쟁 제 무덤 파는 것

위장평화공세 반미선동에 편승, 통진당해산저지, 6.4지방선거 영향 노림수

민노총이 전국 25일 서울.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출범한지 1년차가 되는 박근혜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총파업' 을 벌이고 여기에 지난 해 오발탄(誤發彈)이 돼버린 철도파업이 곁들여 진다.

당초 집회신고에 가두행진을 불허 한 경찰을 상대로 신승철 민노총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가두행진불허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받아들임으로서 도심마비투쟁의 멍석을 깔아 줬다.

우리사회에서 노조와 정권퇴진투쟁이 언제부터 당연시 됐는지는 기억조차 없다. 1970년대 위장취업자들이 벌인1986년 5월 3일 인천주안폭동을 시발로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무제한 폭력투쟁 극렬양상을 띠면서 정권타도의 선봉으로, 체제파괴의 주력으로 'NL/PD혁명'을 통한 '노동자정권수립'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연방제(적화)통일 주체가 되겠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박근혜대통령 취임1주년인 2월 25일을 거사일정으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과 전술적 고려가 있다고 본다.

우선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민주란 단어는 인류역사가 만들어 낸 보편적 선(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고 맑스 레닌이 주장하는 비타협 무제한 무차별 폭력혁명의 결과물로서 '무산자독재정권' 을 만들기 위한 낡은 구호이자 흉기(凶器)에 불과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 규약은 물론 각종구호와 폭력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惡의 본성〉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조직체계 역시 정치위원회와 통일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 노조가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위장한 폭력정치이념투쟁집단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민노총이 하필이면 2월 25일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은 표면상 박근혜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민노총의 사활이 걸린 이석기 내란음모재판, 통진당 해산심판에 폭력으로 저항하겠다는 직접적 의도를 숨긴 채 6.4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려는 복합적 타산을 하고 있다고 본다.

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계기로 노골화 되고 있는 북괴의 '우리민족끼리' 위장평화공세에 영합하면서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가중되고 있는 반미투쟁선동에 호응 적극동조 동참하려는 '종북본색(從北本色)' 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한다면, 정권타도, 체제전복, 노동계급정권수립, 연방제적화통일이라는 기존의 민노총 노선과 방향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 일색화"라는 북괴 김정은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적극동조 영합하기 위해 2월 25일 '(국민)총파업투쟁' 을 조직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이 국민을 앞세운 이러한 시도는 시작부터 실패가 전제 된 것이다.

우리국민은 1980년대 민주화태풍과 북괴 노동당 및 지하당 지령에 놀아나고 불순서클의 학습을 통한 전체주의적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폭력투쟁 쓰나미의 폐단과 폐해를 싫도록 학습하고 2002년 미선효순 여중생교통사고 반미촛불의 광기(狂氣)와 2008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의 악마성을 질리도록 체험 했기에 한중절망버스 밀양절망버스가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못 얻고 종북 만의 굿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민노총의 실패를 예측,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설 대목 교통대란을 겨냥한 철도파업이 소득 없이 좌절된 것은 민노총과 폭력노조에 대한 국민적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양아치식 자해공갈이요 알카에다식 자폭테러 수법이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사소한 질서위반이나 불법은 어떤 이유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됨은 물론, 상투적인 폭력투쟁은 가차 없이 엄단함으로서 이 기회에 노동운동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분명해 진 것은 실패를 전제로 한 2.25 총파업은 민노총이 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며, 민노총이 벌이는 이와 같은 발악적 몸부림은 민노총의 수명이 다했음을 뜻한다 하겠다.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주님의 교회

강사 김 찬 양 목사

현시대는 Globalize Culture 문화세계화 시대이며 감성 터치의 복음 다문화시대이다.
선교의 목적이나 전도의 방법 취미로 배우고자 하시는 교우나 동호인을 모집합니다.

교육내용 1. 영어찬송(복음찬양)
2. 각종악기 기타, 드럼, 베이스

◆모집기간 : 수지접수 ◆교육기간 : 3월
◆일 시 : 매주 목요일 ◆교육시간 :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주님의 교회 3층(문화 아카데미)
□ 강 사 : 김 찬양 목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282-16
□ 연 락 처 : 010-4533-1490
□ 찾아오시는 길, 인천 동암북부역에서 마을버스로 한정거장 하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 교 회

■표어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담임교역자: 이영풍 목사 부교역자: 박용선 목사
협동교역자: 이천희 목사 파송선교사: 김상인, 주현
시무장로: 이경환 은퇴장로: 오병희
안수집사: 구경희, 이재만 교육전도사 : 이윤주
반주자: 이용주

교 회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9 (02)443-5153)
목사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7길 19 (02)417-2848)
H.P 010-6861-3927, 010-6289-2291
빛 교회 카페 http://cafe.daum.net/holylightchurch

2014년 제 1 차 전국사역자 및 평신도 전도, 기도, 치유 세미나

21C 병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고친다.
자기 체질을 알면 모든 병을 치유 할 수 있다!!

강사약력 유연식 목사
총회신학연구원장, 한국자연치유연구원장,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특강 내용》
♠ 운동 5분으로 무병장수 비결 ♤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처방 법
♠ 내 몸에 유익한 운동 해로운 운동 ♤ 자연치유법으로 질병치료
♠ 식이 요법 운동요법

맞 / 춤 / 운 / 동 / 처 / 방

요통 두통 관절염 견비통 신경통 오십견,
목. 허리디스크 위장병 고혈압 불면증 당요병

• 대 상 : 사역자 및 평신도 • 선착순 : 00명
• 준비물 : 간단한 운동복. 세면도구. 성경
• 일 시 : 2014년 3월 4-5일(화-수) 오후 3시
매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박 2일)

장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3층(문화 아카데미)
문의전화 : 017-743-7313. 010-5013-1723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282-16
찾아오시는 길, 인천 동암북부역에서 마을버스로 한정거장 하차

교회 꽃꽂이 강좌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장소 주님의 교회 3층 문화아카데미)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수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 표

곽영민 목사

교장 / 사무국장 / 교무국장(교수) / 사무간사

김해자 목사 / 김선우 목사 / 김성립 목사 / 김영애 사모

교 수 진

이창광 목사 / 박영화 목사 / 김장렬 목사 / 곽영민 목사

■곽영민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 부흥사회 대표/연수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8-9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http://kiea.onmam.com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
☞장소 :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숭의1동 441-45)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둘로스 총회 신학 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 가져

2013년도 철학박사 · 신학석사 · 목회학석사 등 20여명 배출

예장(순장)총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노왈수 박사)는 2월 11일(화)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대천교회(강 철 목사)에서 2013년도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교무처장 임창일 교수의 진행으로 이사, 교수, 졸업생 순으로 입장이 있었으며, 이사 강 철 목사의 기도, 재학생들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지태영 목사는 골 4:1~4절로 "문을 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지 목사는 1.선교와 전도의 문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열린다(골 4:2,3). 2. 전도의 문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열린다(골 4:3,4)면서 우리는 문을 여는 사람들이다(선교/전도의 문). 하지만 언제 문이 열리며 어떻게 해야 문이 열리는가 이는 마땅히 할 말을 해야 열린다고 했다. 마땅히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붙어 집착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 하되 학위를 받는 원우들, 가정, 직장, 사업장, 사역을 위해, 또한 문을 여는 사명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붙잡아 내게로 가져오는 손이라고 했다.

이어 교무처장 임창일 교수가 학사보고를, 총장 노왈수 박사는 목회학석사과정(M.Div.).15명, 목회학연구과정(M.Div.eq.), 1명, 신학석사과정(Th.M.), 2명, 철학박사과정(Ph.D.), 2명, 명예신학박사 1명, 평생교육원 상담과정 3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총장상(성적우수상)/이경아(M.Div.), 이사장상(공로상) /박승진(M.Div.) 총동문회장상(공로상)/ 정다운(M.Div.), 총회장상(목회장려상)/김광일(M.D.iv.) 등이 상을 받았다.

이날 홍문식씨는 '청교도 설교에 근거한 한국교회 설교 갱신의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신학석사 받았으며, Choijiljav Dolgomaa씨는 '칼빈의 경건 신앙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신학 석사학위를 수상했다. 또한 고영윤씨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적 신인식 원리'란 논문으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구자수씨는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에 나타난 헤림의 이중성 연구'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총장 노왈수 박사는 공로패를 전달하고, 훈사에서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동안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졸업생들이 정들었던 모교를 빛내고 나아가 사회와 교회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사역자들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사장 전충현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교무처장 임창일 교수의 광고와 총회장 지태영 목사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침례교단, 정기임원회서 한기총 떠난다 '탈퇴' 결의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최근 제 103-6차 정기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교단 탈퇴를 결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침은 2012년 예장통합 등이 한기총을 탈퇴하고, 한국교회연합이 창립되는 등 한기총 분열이 가속화되자 그 해 정기총회에서 한기총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비 납부 및 교단 대의원 파송을 중단하고, 교단 명칭 사용을 금하는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도 행정보류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침 총회장 김대현 목사는"당시 한기총을 완전히 탈퇴하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기보다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라며"하지만 이단해제 논란과 장기집권 문제 등으로 한기총이 지속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고, 예장합동과 고신 등이 탈퇴를 결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회원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교단 내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결의한 것"이라며"올해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며 결의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침 총무 조원희 목사는"일각에서는 우리 교단이 그간 한기총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해 총대권을 잃었고, 회원으로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오로지 한기총이 회복되길 바라며 대응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탈퇴 이후 한교연 등 다른 연합기구에 가입할 의사는 없으나 어디든 진정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바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장성문 작가의 "일출"

2월의 추천 作 일출

본회 회장 김종욱 목사가 뽑은 추천작 예당저수지에서 담은 "일출"이다.

제1회 가족사랑 콘테스트 선정작 발표

금상작품

대한기독사진가협회(회장 김종욱 목사)주최, 제1회 가족사랑 콘테스트 입상작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상, 증조모의 증손녀 사랑(엄영수 목사), 은상, 손에 손잡고(김종욱 목사), 동상, 가족사랑(손금숙 집사) 등이 각각 수상했으며. 특선 작은 아빠와 아들(이상중 목사), 아빠와 딸(박갑열 목사)이 특선에 선정되어 터치커피를 상품으로 수여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제1회 가족사랑 콘테스트 심사위원장에 엄영수 목사(직전회장 대광교회), 총괄책임에 곽완근 목사(본회 총무 공주 두란노교회), 심사위원은 본회 사진 전문위원 이상중 목사(증경회장 새용진교회), 강상훈 목사(전주 한누리교회), 주승철 집사(대기협 아카데미원장) 등이 엄정한 심사를 맡아 주관했다.

은상작품

동상작품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4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모상련 담임목사

예배안내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7:3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	
		3회	오전 11:30	
	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	금요예배		오후 9:30	
토요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5:00	
매 일	새벽예배		오전 5:00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30	2층 새롬반실
		2회	오전 11:30	
	유초등부	1회	오전 8:30	3,4층대예배실
		2회	오전 10:10	2층 영산강홀
	중등부		오전 9:00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10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30	5층 두란노홀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

부목사 정동현 모정선 송호성 모성온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김진희
협동목사 장장화(은퇴) 서기욱
전도사 추정희 배순단
교육전도사 송선택
시무장로 고재련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원복희(휴직)
은퇴장로 노남규
협동장로 문환웅 이병화

찬양대

찬양대	지휘	반주
할렐루야	고창현	장주영
아멘	한문희	박애숙
셀라	모정선	최운정
임마누엘	문정인	정다솜
글로리아	한문희	최운정
유빌라테	고 성	이지연

찾아오시는 길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총재)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4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9: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길
〈도시형버스〉
1 중산 ↔ 화정 85-1 고양동 ↔ 송정전철역
850 고양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고양동 ↔ 김포공항 800 내유동 ↔ 신촌
9701 가좌동 ↔ 명동 9713 본일산 ↔ 서울역
〈직행좌석〉
82 내유동 ↔ 영등포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49주년 기념예배 드려

대한민국과 국회 위해 지속적인 기도 요청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기독교인 300명이 참석한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1부 예배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윤 목사는 요 3장16절을 본문으로"멸망에서 영생"이란 설교를 통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자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 받고 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예수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늘 기도하는 의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예배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사회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인 장헌일 장로의 대표기도, 민주당 박영선의원이 헌금기도 순서를 맡았다. 예배 후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장은 이번 기도회는 지난 1965년 3.1절을 앞둔 2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참석해 복음 안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모임이었다고 소개하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과 국회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가 3월6일 코엑스 컨벤션에서 개최됨을 알리고 이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특별찬양으로 연세중앙교회 연합성가대와 국회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고 김준곤 목사의 권유로 시작 되었으며 첫 기도회는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전 국무총리)과 김영삼 당시 민중당 원내총무(전 대통령) 정일권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전광훈목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

서세원 목사

전광훈 목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심포지움이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업적만이 아닌 과오에 대한 평가 부분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세밀한 조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이 자리에는 애국총연합회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대표, 이선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했고, 전광훈목사(사랑제일교회, 대신총회 부총회장)와 전 방송인 서세원 목사가 감독을 맡아 자리에 배석했다.

전광훈목사는 "한 국가와 시대와 민족이 잘못된 집단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은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독일과 일본이 히틀러와 천왕의 잘못된 집단최면에 빠져 2차세계대전의 비극적 역사에 빠지게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못된 집단최면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이유는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면서 "이러한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제작함으로 잘못된 집단최면으로 빠져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 총감독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연구해온 이주영 박사가 맡았고, 20여명의 이승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시나리오가 완성될 예정이다.

제작 총감독으로는 안중근 영화, 조폭마누라 등의 영화제작을 통하여 인정된 서세원 감독을선임했다. 전광훈 목사가 후원회장으로 맡아 후원자를 모집하고 7~8월에 영화제작, 촬영을 시작하고 내년 7~8월 건국절에 개봉할 것으로 목표로 진행된다.

전광훈목사는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창시자 및 건국자는 국가가 주도하여 영화를 제작한 바가 있으며 각 국가의 국부들에 대하여는 시대적 영화를 제작한 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만든 국가의 틀 위에서 오늘날 세계경제 10대 대국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존재의 근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너무나 큰 범죄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이승만 영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건국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인류와 세계 앞에 최첨단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 두는 줄로 아느냐!!"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며 북조선에 남겠다고 하신 79세의 할아버지.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 건너 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한 그는 조선족이 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 자시러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세 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 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이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였고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 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 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우물 쏟아 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 라는 질문에 노인은 답을 하셨습니다. "찬송 한번…" 할아버지가 건너 온 그 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름한 집 마루에 걸터앉은 우리, 아니 그 분들의 모습이 잊혀질까 오히려 두려운 적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리 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5명의 탈출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며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아이들도 있다지 않는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 한 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결론 내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 냈습니다.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신 후...한 10분이나 걸렸을까? 노인이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꽈악쥔채로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가 우릴 돕겠다는데 따라 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네다. 나도 압네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5년, 장남 조희준 징역3년 실형선고

조용기 목사 계획 범행아니고 사회복지 기여 참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13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목사(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협의에 대해서는 조용기 목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증여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밖에 조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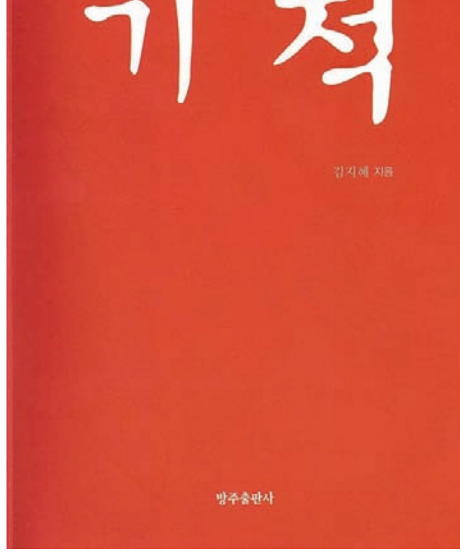
반면 장남 조희준 씨에 대해서는"여러 단계를 거쳐 변칙적인 주식 거래 과정을 주도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교회에 떠넘겼다.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고 그 이익도 본인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한다. 외형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협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박용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배경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김익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6억, 나을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도기도모임(이하, 장로기도모임)은 20일 법원의 조용기 목사 부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조용기 목사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용기 목사에 대한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용기 목사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김지혜 목사 간증집 기 적



· 구입문의 : 070-8162- 3109 H · P : 010-4938-3100

탕자의 삶,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가 되어

10대 때의 방황, 알코올 중독과 이혼, 가출, 자살 시도
김지혜 목사,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기적... 하나님의 손
인생 삶의 끝자락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없었더라면 알코올 중독과 밤배, 가출과 이혼, 자살 시도 등 10대의 방황으로 김지혜란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김지혜 목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을 개원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는(송파방주기도원 원장)김지혜 목사에 대해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결국은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목사된 신앙간증집이 출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넘쳐나는 책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금식기도원
T.070-8162-3109 H.010-4938-3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0-10 지하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 (방주기도원) Godlovesyou2012

▶교통편
전철 8호선 석촌역 7번출구에서 직진으로 10분정도
배명고등학교 사거리 육교 앞에서 롯데마트 옆골목

웨신총회, 43명 응시 강도사 고시 시행

자신의 귀한 정체성을 마음 판에 새기고 자부심 가져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회장 이홍규 목사)는 2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 동백 죽전대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총회에서 7명, 웨신대학원 M,div 학위를 받은 36명 등 43명이 응시해 강도사 고시가 시행되었다.

웨신대 한동숙 이사장의 축복기도가 있은 후 부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직전부총회장 김춘택 목사가 기도, 고시부장 허성인 목사는 엡 1:11~14절을 본문으로"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고시부장 허 목사는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방법을 제시하고, 1. 우리의 귀한 정체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라(엡1:11~12절)하고 2.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실을 믿고, 복음증거에 올인 해야 한다(13절)고 강조했다.

3. 우리가 장차 얻을 영원한 기업을 현재에도 누려야 한다(엡 1:14절)고 했다. 사도바울은 고전 5:5절에서 우리가 장래에 거할 하늘의 처소, 곧 하나님나라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했다며,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들을 굳게 붙잡고 바르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했다.

아울러 고시부장 허성인 목사는 자신의 귀한 정체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부심을 가지며,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며, 아울러 영원한 기업의 축복들을 굳게 붙잡고 바르게 누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주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형룡 박사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한 학우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 때문에 평생토록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면서 강도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여러분도 사도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모두가 다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총무 신언창 목사는 광고 및 인사에서 강도사 고시에 응한 43명의 학우들을 축하하고 강도사 고시 합격증은 웨신총회에 개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는가 하면 우편물로 발송하며, 총회 산하 소속된 노회에서 지도를 받고, 보수신앙과 개혁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총회인 웨신에 몸담아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함께 힘쓰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총회장 이홍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고시 및 면접이 시작되어 강덕원 목사의 기도로 1. 설교실기가 진행되어 각자가 기도로 준비한 설교를 한 후, 이 규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면접을 가졌다.

3부 순서로 고시부장 허성인 목사의 진행되어 총무 신언창 목사가 광고를 직전총회장 이재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기총 제19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취임 감사예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19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12일(수) 오후 6시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교계, 정계 지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예배는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그교협 국제대회총회장) 사회로 명예회장 하태초 장로(평협 증경회장)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후 명예회장 조용기 목사가 창세기 12장 1-5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용기 목사는 "사람들이 한기총을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한경직 목사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한기총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며 "홍재철 대표회장님의 취임식을 맞아, 충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 달라"고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한기총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도 잘 되고 국민들도 편안해질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갖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잊을 수 없는 공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단체와 인물을 충실하게 받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허물은 덮고 좋은 점은 받들어 용기와 힘을 내어 한국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했다. 또 "홍재철 목사님은 규모가 큰 단체를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 많은 기도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교 후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개혁총회 증경총회장)의 내빈소개, 경서교회 성도대표 원혜영 의원(민주당)의 대표인사, 서기 황덕광 목사(예장합동보수망원 증경총회장)의 대표회장 약력소개가 이어졌다.

인사말을 전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8대 대표회장을 2년간 역임하는 동안 아시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상당히 많아 짐을 벗고 싶었지만, 다시 19대 대표회장직을 새롭게 짊어지게 됐다"며 "대표회장직을 맡는 동안 32년간 시무하던 교회에서 은퇴하고 홀가분해졌는데, 더 큰 열심으로 이 일을 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순종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줄 믿고 화합하고 화목하여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대표회장이 되겠다"며 "오늘 참석하신 '보수의 마지막 보루'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님과 함께 오는 3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대적인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기독신우회장), 증경회장 이용규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개혁총연 증경총회장)가 축사했고, 공동회장 김성광 목사는 회고사,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기성 증경총회장)와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기침 증경총회장)가 각각 격려사를 전했다. 공동회장 윤항기 목사(개혁예음 총회장)은 축가를 불렀다.

이후 회원교단 대표 조갑문 목사(합동중앙 총회장)와 총무협의회 대표 정춘모 목사가 축하패를 증정하고, 총무 최명우 목사의 광고와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예장개혁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됐다. 2부 만찬과 교제 시간에는 케이크 커팅과 국회파송위원장 양성전 목사의 만찬기도, 기념촬영과 축가 등이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 3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3(월) 오후	미국 Henderson C. University 연구과정(한국캠퍼스)
3(월)~ 5(수)	광주 샬롬선교센터(고정임 목사) ☎(062)432-6392
6(목) 오전	국가조찬기도회(장소: 서울 코엑스)
9(주일) 저녁	서울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 ☎ 010-3683-1005
10(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0(월)~14(금)	필리핀(Philippines) 앙겔레스제일교회(오세일 선교사) ☎ 070-8231-4862
17(월) 오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원장 우광순 목사) ☎ 010-3900-8240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7(월) 오후	인천 엘림교회(주흥자 목사) ☎ 010-7646-7769
18(화)~20(목)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2(토) 오전	기도치유아카데미(원장 장요한 목사)
23(주) 오후	서울 주하늘교회(이정원 목사) ☎ 070-7434-1003
	제182차 해외성회(182nd Overseas Assembly)
24(월)~25(화)	미국(U.S.A) 펜실베니아 Global Mission Seminary (학장 Joseph Kim) ☎(215)782-1117
26(수)~27(목)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267)575-5617
28(금)~29(토)	미국(U.S.A) 뉴욕성회
31(월) 오후	중국(China) 정주, 구련지역성회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강영선 목사)

아 가 강 해 상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아 4:10)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온교회 신한은행 100-029-475990
책 값 한 권당 12,000원입니다. 신청 권수에 상관없이 입금 확인 후 무료 배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내기에 3,4일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익금 전체는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하) 출간과 히브리서 강해, 신부단장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 출간하는데 사용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어디에나 판매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상)/ 저자 조영만목사 / 나됨출판사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

2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가 강해를 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아가를 읽고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덮어 놨습니다. 이걸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해를 합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을 알려 주는 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두 구절씩 강해를 해 나갔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72주 동안 아가 강해를 한 것입니다. 아가 강해를 통해,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당당히 맞이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자의 '책 머리에' 중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 나려면

- 조영만 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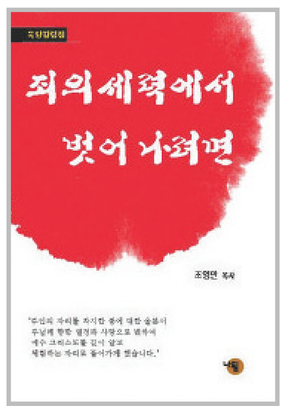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할수록
저자의 양심을 괴롭히던
죄 문제와 자기 의를 해결하기 위해
3일 금식도, 7일, 10일, 20일,
결국에는 40일 금식기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과 말씀에 전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자신이 40일 금식을 100번 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은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모든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게 되었는데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거듭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기쁜 소식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발판으로 기록된 글들을 통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의문의 묵은 것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저자 '책 머리에' 중에서–

조영만 목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M.Div. M.A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음 이사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전문위원
인천지하철공사 기독신우회 지도목사
인천시청 기독신우회 지도목사
JTNTV방송 및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실무총무
인천시온교회 담임목사

· 구입문의 : 조영만 목사 010-5355-2584, 이규필 목사 010-7474-3173
※ 여러권을 구입할 경우 할인하여 드립니다.



조영만 목사 지음
/ 정가 10,000원